

## [ 오피니언 ]

## 테마칼럼

광재로 대상보기

예술로의 초대

문화예술

문화·문화 대상



정금희

“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에 따라 충실히 노력하고 진정 자아를 개발하고 가꿔 나간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종교칼럼



고재경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당장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선택이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이 모두 다 옳을까? 때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내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자만자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선택이 최악 이었음을 알게 되고 한동안 혹은 평생을 후회하면서 지내기도 한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이솝의 우화 이야기가 하나 생각난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시골길을 따라 물고 가고 있었다. 당나귀를 그냥 물고 가

## 최상의 선택

는 것을 보고 아버네들이 쑥덕거린다. “이왕이면 아들을 태우고 가지 왜 그냥 갈까?”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다. 그러자 노인들이 비아냥거린다. “젊은 녀석이 편하게 나귀를 타고 늙은 아버지가 걸어가다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타고 아들을 걱정 하니까 동네부인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어린 아들을 걱정 하다니, 뜯된 아버지 군!” 하는 수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나귀에 올랐다. 사람들은 이제 “당나귀가 불쌍해”라고 수군거린다. 생각 끝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장대에 매달아 어깨에 메고 간다. 시장으로 통하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웃어대기 시작하자 놀란 당나귀가 몸을 뒤트는 바람에 당나귀를 매단 장대를 놓치게 되었다. 물론 당나귀는 강물 속에 빠져 죽게 되었다.

당나귀를 물고 가는 아버지가 생각해

문고 성찰하는 가운데 자신과 남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련한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은 다시금 정부와 정당, 경찰과 경찰에게 물고 있다. 당신들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존재이유인 국민을 기만하고 다른 데에만 운동 신경을 쓰고, 국민은 안전에 없는 것인지 묻고 있다.

이제 국민이 뿐 났다.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운 결과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기 시작하자 더 이상은 참아 줄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 정당, 경찰, 경찰이 자신들의 목적이며 존재이유인 국민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자신들의 존재이유인 국민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원칙이 될 것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법원 판사>

## 음료수 같은 자동차 워셔액, 색깔·용기 바꿨으면

자동차의 워셔액과 부동액은 어찌 된 것인지 그 색깔이 일반 청량음료수의 색과 비슷하며 용기 또한 페트병이다. 그래서 자칫 실수하면 스포츠 음료수로 착각해서 그냥 마시기 십상이다. 작년에도 워셔액을 베란다에 갖다 놨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스포츠 음료수인 줄 알고 한 모금 마셔서 아주 큰 위험을 겪은 사례가 있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워셔액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워셔액을 집안에 놔두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 당장은 워셔액 색깔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워셔액 걸면에는 아래에 “절대 마시지 말라”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아주 크게 부쳐 놨으면 좋겠다.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 진정한 자화상을 그려 보자

5월29일 그 슬펐던 날, 경복궁 앞에서 거행된 국무장 영결식장에서 한명숙 전 부총리는 “노무현 대통령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높푸른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말이 하공으로 날아간 뒤 몇 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짐비위에 환정 같은 메이드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집권 5년 동안 노력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는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은 눈앞의 이익과 욕심에 의해 개인과 지역, 집단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심화되어 삶은 각박하고 피폐해져 있다. 그동안에도 마냥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옳은가라는 오래된 의심을 노 전 대통령은 여지없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뒤 온몸으로 그것을 증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겪었던 고통은 만약 그가 최고권력자가 아니었고, 퇴임 후로도 계속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버커질 수 있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재임 때와 마찬가지로 퇴임 후에도 여전히 그가 꾸준히 사람이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생에 태어나 살아가는 순간 동안 충실히 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런저런 시련과 고통은 계속된다. 다만, 각자 쳐한 현실에 따라 느끼는 고통의 성격이나 정도가 다르고 모양만 달라 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각자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갈 때를이다.

지난 19세기 이후 북미 강대국의 식민지나 다른 없는 세월을 어렵게 버티면서 고통을 겪어온 멕시코, 그 나라의 근·현대사는 우리나라 못지 않는 질곡의 세월을 겪은 나�다. 미국의 그러한 고통은 멕시코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그 가운데 프리다 칼로(1907~1954)는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간 유명한 여성화가이다. 뿌리깊은 문화와 전통을 지녔으나 서구강대국에 의해 짓밟힌 후 지금까지 순탄치 않은 역사를 가진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멕시코는 1910년 혁명을 요구하는 농민혁명이 발발했고 프리다는 그 시기에 태어나 길지 않은 생애 동안 독특한 영역을 구축한 화가이다.

그녀는 사설 디에고 리베라라는 유명한 멕시코 혁명 화가의 아내였기 때문에 더더욱 역사의 소용돌이에 감겨든 인물이기도 하다. 그녀의 삶은 한 개인에게 닥쳤다고는 믿기 어려운 고심 참담한 불행을 겪었으며 그만큼이나 강렬한 삶의 방식으로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그녀는 일생동안 32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죽음은 평생 그녀와 함께했으며, 그 고통은 그대로 그림으로 승화되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자화상이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여 경험한 삶과 체험, 삶의 흐름을 솔직하게 그림으로 표현했다.

프리다의 삶은 한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봐도 평탄하지 않았고, 끊없는 육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사랑의 배신감 등 과란만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찾아 열정적인 삶을 영위하여 위대한 예술로 승화시켰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미디어를 통해 접하고 한다. 갈수록 인간의 도리에서 이탈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높이켜 보게 된다.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없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서글퍼진다. 불고서에 설하기를 세상은 인과응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일들은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정의나 진실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 진정 자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다. 우리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각자 자화상을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나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 그에 따라 충실히 노력하고 진정 자아를 개발하고 가꿔 나간다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설

## 갈수록 흥포화·집단화 되는 10대 폭력

10대들의 폭력수위가 도를 넘었다. 최근 광주에서 10대 청소년 12명이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생 1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를 하지 않고 짜려웠다”며 폭력을 행사한 이유다. 12명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도 충격이지만 폭행이 단지 자신을 짜려웠기 때문이라니 할 말을 잃게 한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 모 중학교를 중퇴한 이모(19)군은 동네 선후배 등 11명과 함께 같은 동네에 사는 중학생 P(15)군을 광주시 서구 쌍촌동 S아파트 내 공원으로 불러내 수 차례 P군의 얼굴과 가슴을 때렸다. 동네 주민들이 이를 지켜보자 이들은 700여m 떨어진 옆 기부부대 인근 공터로 P군을 강제로 끌고가 폭행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은 P군을 다시 인이드룬 야산으로 데려가 세 번째 집단 폭행을 가했다. 특히 이들은 길이 1m, 지름 6cm의 나무 지지대로 쓰이는 각목 2개로 P군의 머리 등을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

이제 10대들의 폭력문제는 어느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과제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교의 각별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녀가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부터 남을 배려하게 하는 등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폭력의 수령에 빠진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둡다.

## 농번기 일손 빼앗는 ‘희망 근로’ 개선돼야

지난 1일부터 실업대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농촌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시행 시기가 농번기와 겹치면서 농촌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 영농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더욱이 올해는 희망근로 때문에 그나마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게 됐다. 고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인력이 힘든 농사보다는 대우가 좋은 희망근로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희망근로자는 일당 3만6천원과 휴가 및 4대 보험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것도 아니다. 지난 달 26일 참가 신청을 마감한 전남도의 경우 확정된 희망근로자의 67%가 60세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농촌 인력난만 부족을 증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희망근로자를 농번기 일손돕기 기관으로 구성된 각 시·군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폭등, 일손 부족 등 삼중고를 겪으며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은 못해줄 망정 농민을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는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맞춤형 실업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새기는 새가 되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집비둘기

를 지정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환경부의 발표에 네티즌들도 대체로 환영하는 것 같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101명 중 83%가 환경부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환경부의 시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남도가 희망근로자들로 구성된 ‘농번기 일손돕기 기관’을 구성, 각 시·군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렇다고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 해소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한 것도 아니다. 지난 달 26일 참가 신청을 마감한 전남도의 경우 확정된 희망근로자의 67%가 60세 이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농촌 인력난만 부족을 증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한 희망근로자를 농번기 일손돕기 기관으로 구성된 각 시·군별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지금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폭등, 일손 부족 등 삼중고를 겪으며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은 못해줄 망정 농민을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어서야 되겠는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맞춤형 실업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둘기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

비둘기는 내치는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 조만간 비둘기 관리방안을 마련할 모양이다.